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발행일 : 2023. 10. 18
발행인 : 대표이사 원미정
발행처 : 경기복지재단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31-267-9362 F. 031-898-5935 E. minsuoh@ggwf.or.kr

MZ세대 사회복지사에게 미래 복지를 묻다

목차

- I. MZ세대의 의미와 이해
- II. MZ세대가 생각하는 미래 복지
- III. 정책 제언

MZ세대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의 복지는?

- ▶ MZ세대 사회복지사는 저출생, 경제적 불평등, 정신건강 등이 시급한 현재의 사회문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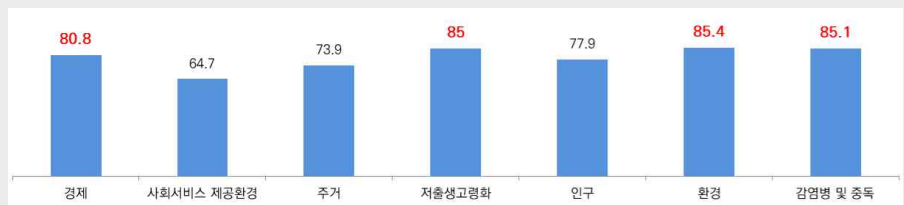
- ▶ MZ세대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사회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공정, 지방의회가 가장 낮은 수준의 공정성을 보인다고 인식

- 취업기회나 성별에 따른 대우 등에는 공정성의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미래는 생활물가, 인구, 중독, 환경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 예상

- ▶ 미래는 현재보다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예상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제공 환경은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제공인력의 취약한 노동환경 문제는 잔존할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정신건강/중독치료 등 분야의 확장 필요
- ▶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사회문제에 사회복지사의 대응과 참여 촉진



I. MZ세대의 의미와 이해

MZ세대는 1980~2000년
출생한 세대로 디지털
기술과 친숙하고 이를
배경으로 세계관을
공유하고 소통

MZ세대는 "밀레니얼(Millennials)"과 "Z세대(Generation Z)"를 뜻하는 용어로 현재 대중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소비자 그룹을 지칭

- ▶ MZ세대란 1980~2000년생을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생을 뜻하는 Z세대를 합친 말로, 만 16세부터 40세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인구통계학적 집단¹⁾
 - 대한민국 MZ세대는 1629만9천 명으로 총인구의 32.5%를 차지(통계청, 2022)
 - M세대는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인터넷이 보급되어 상용화 되는 시대에 성장한 인구집단
 - Z세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술과 동반 성장한 인구집단
 - 이들을 MZ세대로 집단화하는 이유는 출생년도나 나이가 아닌 디지털 기술과 친숙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는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때문임
- ▶ MZ세대는 과거 세대들과는 다르게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높아 기술의 발전과 정보를 더 빠르게 소화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형성
 - 이런 빠른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SNS를 통해 가족, 학교, 사업장 등 물리적 범위를 넘어 동일 관심사별로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접하고 인식을 형성
 - MZ세대(Millennials 및 Generation Z)는 이러한 변화들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힘으로 부상하며, 이들의 시각은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 이들은 사회적 공헌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복지와 사회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

〈그림 1〉 세대별 직업관 예시



출처: <https://www.wiseapp.co.kr/insight/detail/333/이향은>

MZ세대 트렌드를 참고하여 다가오는 미래 사회복지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필요

- ▶ MZ세대 사회복지사들은 미래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1) <https://www.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11361>

I. MZ세대의 의미와 이해

MZ세대는 자신만의 관심사나 특기를 콘텐츠화하여 부가적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이슈에 대한 참여

- MZ세대는 '자본주의 키즈'라 불리기도 하며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로 등장하고 있음
 - 자본주의 속에서 자랐고, 다양한 매체와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며 자랐기에 자본주의 생리를 잘 알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최적화된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망 등을 형성
- 전문가의 견해, 유명인 연예인의 광고보다는 인플루언서를 더 신뢰
 - 인플루언서는 뷰티, 패션, 여행, 일상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활동하며 영향력을 키운 사람을 지칭
 - MZ세대는 일방향성의 대형 매체의 광고보다는 인플루언서들의 이용후기를 더 선호하며 인플루언서와 소통하는 것을 선호
- ▶ 본인의 직업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취미나 자신만의 특기를 콘텐츠화하여 부캐(부캐릭터)로 형성, 일과 삶, 직업활동 외 부가적인 활동 등에 활발
 - 부캐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20년 소비트렌드 10개 중 하나로 제시한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와 통하는 개념²⁾
 - 멀티 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는 뜻으로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뜻함
 -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집에 있을 때, SNS 등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 등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이 발현되는 것
 - 자신의 본캐(본캐릭터) 역시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등에 업로드하여 자신의 직업을 통해 얻게 된 전문적인 정보, 또는 일상생활 정보 등을 제공
 - 일부는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정보의 일방적인 수요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역할에도 적극적

〈그림 2〉 MZ세대 부캐, 본캐의 디지털 콘텐츠화 활동 예시

			
<p>움푹공방 운영자는 의류 공장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다 버려지는 잉여원단이 아까워 퇴근후 에코백, 파우치 등을 만들기 시작, 플리마켓 참여까지³⁾</p>	<p>이혼전문변호사인 최유나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에 '인스타툰'을 올리다가 많아지자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출시⁴⁾</p>	<p>수집광 잡지 『GQ』의 아트 디렉터 김기열 씨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모은 물건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⁵⁾</p>	<p>개그맨들이 모여 코미디 인재 육성 및 연구를 위해 피식대학 유튜브 채널 운영⁶⁾</p>

- ▶ 이러한 MZ세대의 특성은 MZ세대 사회복지사들 역시 유사한 직업관, 가치관을 공유할 것이며 이를 고려하여 미래의 복지 트렌드와 사회문제를 MZ세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음

2) 네이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https://blog.naver.com/coupang sellers/222354632056>

4) <https://blog.naver.com/coupang sellers/222354632056>

5) <https://www.koreacf.or.kr/journal/column/show.do?ukey=542196>

6) <https://www.youtube.com/@PsickUniv>

II. MZ세대가 생각하는 미래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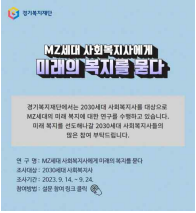
MZ세대 사회복지사 381명에 미래의 사회복지 이슈를 물어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

MZ세대 미래복지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2030세대 사회복지사에게 묻다' 설문조사 진행

▶ “MZ세대 사회복지사에게 미래 복지를 묻다” 설문에 참여한 1980년 ~ 2000년 사이 출생한 MZ세대 사회복지사 381명 분석

<MZ세대 사회복지사에게 미래 복지를 묻다>

- 조사대상: 2030세대(1980년 ~ 2000년 사이 출생자)
- 조사기간: 2023.09.14.~9.24.(11일간)
- 조사방법: 설문참여 URL 접속하여 응답
- 분석대상: 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사회복지사 381명



- 일반적 특성(성별, 출생연도), 근무기관(유형, 서비스 대상), 현재의 사회보장 관련 문제, 미래복지 예측, MZ세대의 사회경제적 인식 등을 분석함
 - 미래복지 예측: 경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 주거, 다문화/사회통합, 인구, 반려동물, 일자리, 지방소멸, 환경, 물가, 감염병, 중독, 사회참여로 구분하여 분석
 - MZ세대의 사회경제적 인식: 주관적 웰빙, 사회적 고립감, 공정성 인식, 경제력으로 구분하여 분석
- 응답자는 1981~1995년생, 여성, 이용시설 근무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76.6%가 1981~1995년생, 여성이 66.1%를 차지, 근무기관 유형은 이용시설 근무자 58.3%, 법인 및 단체 15.5%, 생활시설 13.6%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주민 23.6%, 노인 20.5% 순으로 나타남

〈표 1〉 일반적 현황

구 분		응답수(명)	비율(%)
출생연도	1981~1995	292	76.6
	1996~2000	89	23.4
성별	남	129	33.9
	여	252	66.1
근무기관 유형	이용시설	222	58.3
	생활시설	52	13.6
	법인 및 단체 등	59	15.5
	정부 및 공공기관	27	7.1
	기타	21	5.5
서비스 대상	영유아	1	0.3
	아동	16	4.2
	청소년	11	2.9
	장애인	150	39.4
	노인	78	20.5
	노숙인	1	0.3
	여성	1	0.3
	지역주민	90	23.6
기타	33	8.7	

II. MZ세대가 생각하는 미래복지

경제적 불평등, 저출생, 지방소멸 등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로 인식

MZ세대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시급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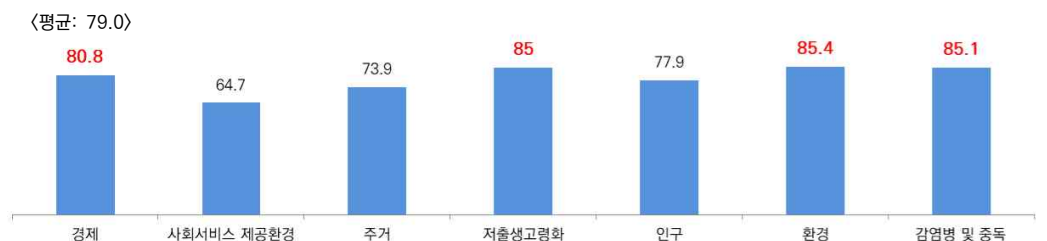
- ▶ MZ세대 사회복지사 역시 우리사회 현재의 문제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의 사회복지 이슈 역시 경제적 부문에 어려움을 예상
 - 현재 사회보장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14.7%)이며 미래에도 물가인상,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을 예상하고 있음
- ▶ 저출생의 문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라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여전히 인구문제, 지방소멸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
- ▶ 주목할 만한 문제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중 시급성이 가장 높은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미래 역시 중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될 것으로 예상
 - 교육, 안전, 일자리, 지방소멸, 환경 등의 문제는 타 사회보장 영역에 비해 현재까진 시급성의 정도가 낮다고 인식
- ▶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큰 이슈로 부각 될 수 있는 부분은 인구, 지방소멸, 환경, 중독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타 이슈에 비해 상대적인 예상임을 고려할 시, MZ세대 사회복지사는 경제, 환경, 인구, 중독 문제에 더 비중을 두어 관심을 갖고 있음
 - 한편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사회참여 등에는 타 이슈에 비해 비교적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그림 3〉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사회보장 관련 문제



〈그림 4〉 미래 사회복지 이슈별 예측

(단위: 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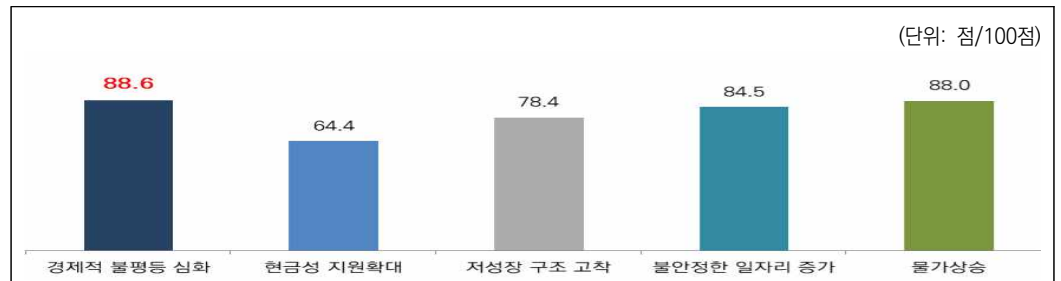
II. MZ세대가 생각하는 미래복지

미래는 경제적 불평등 및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며, 사회서비스 시장화 지속과 제공 환경의 취약성은 여전히 잔존할 것으로 예상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증가

- ▶ 미래에는 현재보다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인식
 - 그러나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상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정체되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될 것 비교적 낮게(78.4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불평등(88.6점)과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84.5점)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부족 등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으로 제시되는 최근의 기본소득, 사회수당 등 현금성 지원의 확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64.4점으로 다소 낮게 예상하고 있음
 - 반면 식료품비, 식재료비 등 생활물가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88.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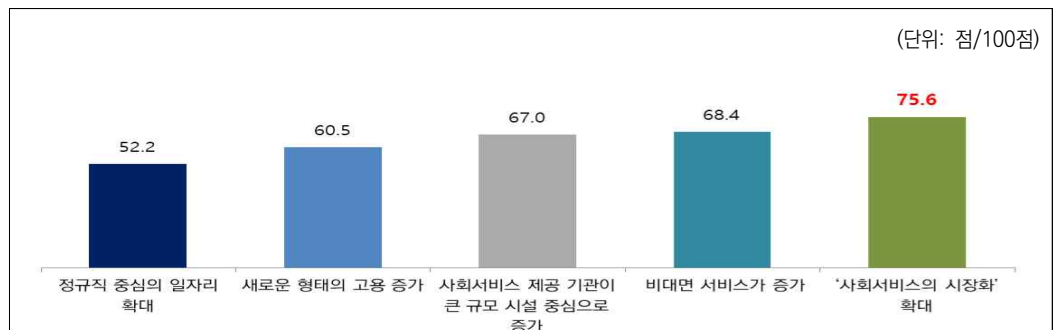
〈그림 5〉 경제 분야 미래 사회복지 예측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예상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은 큰 변화 無

- ▶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향후 점차 확대될 것(75.6점)'으로 예상하지만 기존의 휴먼서비스 중심의 기조는 이어갈 것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근로여건(자율근무, 플랫폼 활용한 유연한 노동 등)의 증가는 미진할 것(60.5점)으로 예상
 - 사회서비스의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원격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에 대해서도 다소 낮은 수준(68.4점)으로 변화를 예상
- ▶ 그러나 작은 규모의 기관 중심으로 제공기관의 확장, 계약직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여전히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에서 인력운영의 취약성 잔존

〈그림 6〉 사회서비스 분야 미래 사회복지 예측



II. MZ세대가 생각하는 미래복지

전문가들은 저출생,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예상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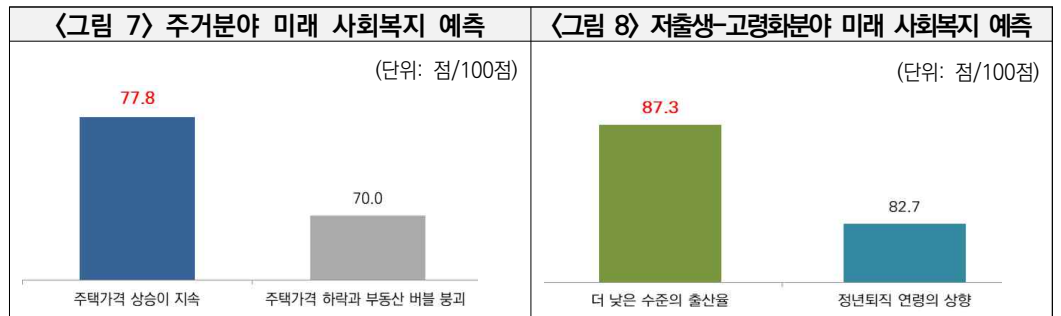
소득증가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 지속

▶ 향후 주택가격, 상승 vs 하락, 과연 MZ의 선택은?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동향에 대하여는 주택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우세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소극적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
 -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 될 것(77.8점)’과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것(70.0점)’으로 응답

출생률 저하, 법정 정년퇴직 연령은 증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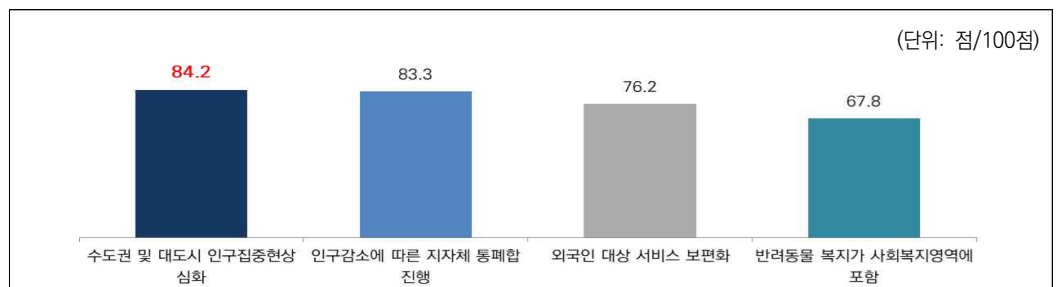
▶ 출생률 및 출생아 수는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저하될 것이며(87.3점), 반면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질 것(82.7점)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지방은 소멸 위기

- ▶ 수도권, 대도시권으로 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84.2점)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 될 것으로 예상(83.3점)
- ▶ 한편 지방소멸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외국인주민 유치, 반려동물을 통한 돌봄 등의 대안은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등 외국인주민 대상 서비스의 보편화에 대해선 소극적 수준으로 증가할 것(76.2점)으로 예상
 -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사회복지영역으로 편입(67.8점)되는 것에는 다소 낮게 예상

〈그림 9〉 인구분야 미래 사회복지 예측



II. MZ세대가 생각하는 미래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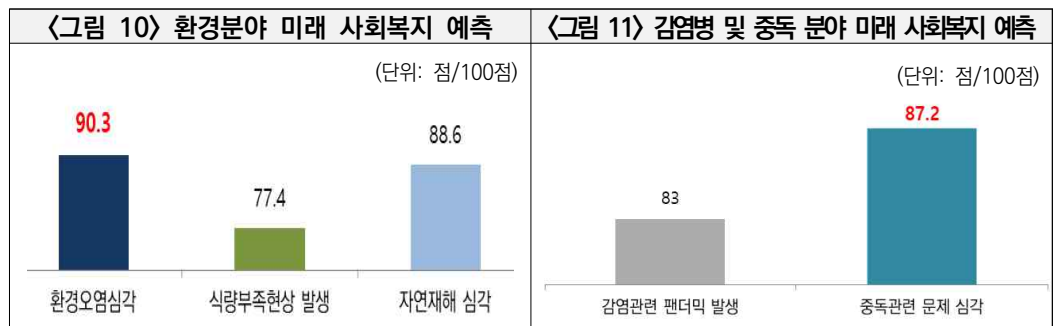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역시 중요 관심사이며, 질병과 중독 문제가 증가될 것이라 우려

환경 문제는 MZ세대 사회복지사에게도 중요한 가치

- ▶ 미세먼지,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90.3점)이며, 자연재해 등의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도 많아질 것(88.6점)으로 예상하여 안전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 필요
 -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식량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77.4점)

감염병, 마약류 등 질병과 중독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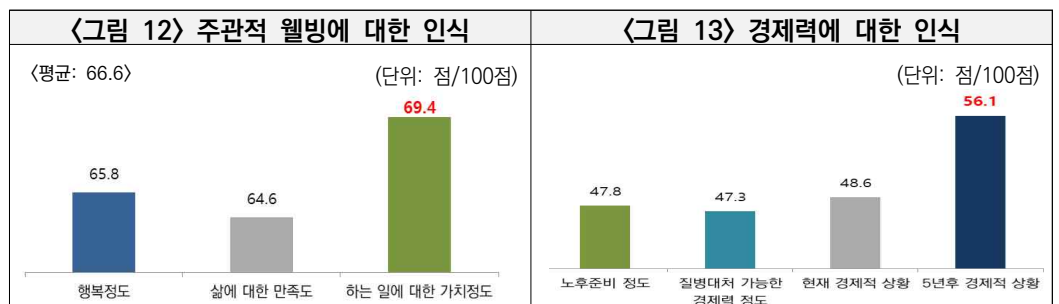
- ▶ COVID-19와 같이 제2의 팬데믹이 발생할 것(83.0점)
- ▶ 마약류 등 약물 중독에 대한 문제가 보편화되고 심각해 질 우려(87.2점)



MZ세대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며, 노후준비, 미래경제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준비

MZ세대 사회복지사의 삶의 질은 보통, 미래 준비는 낮음

- ▶ MZ세대의 주관적 웰빙은 66.6점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있음
 -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나?(65.8점),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만족하는가?(64.6점),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나?(69.4점)'으로 나타남
- ▶ 하지만 노후준비, 경제력 등은 낮은 수준
 - MZ세대 특성 상 경제력 수준이 기성세대에 비해 약함을 고려하더라도 노후준비, 질병대처, 현재 경제적 상황, 5년 후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해서 낮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준비됨



II. MZ세대가 생각하는 미래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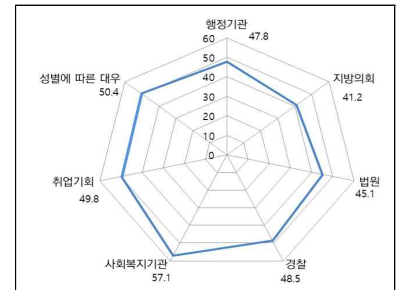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공정하다고 인식, 취업기회와 성별에 따른 대우 등은 이하로 인식

MZ세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기관이 가장 공정하다 인식

▶ MZ세대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평균 47.9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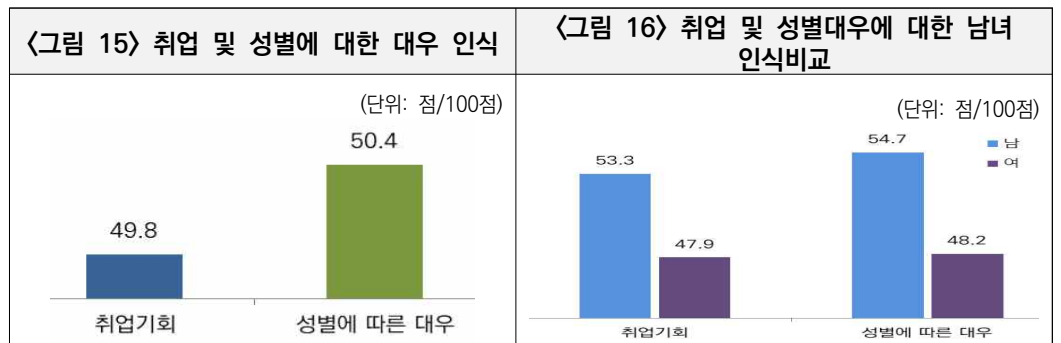
- 행정기관, 지방의회, 법원, 경찰,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의 영역에서 느끼는 공정성 중 사회복지기관이 57.1점으로 가장 높음
- 반면, 지방의회의 경우 41.2점으로 공정성의 수준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14〉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취업기회, 성별에 따른 대우 등에 대한 공정성 정도는 보통이하로 인식

▶ MZ세대 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취업기회는 49.8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대우는 50.4점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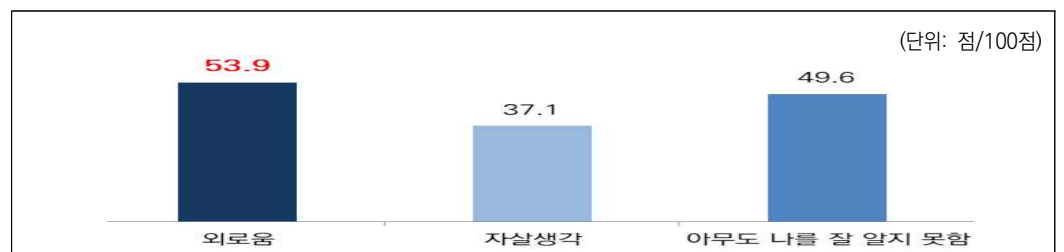


MZ세대 사회적 고립감

▶ 외로움(53.9점), 자살생각(37.1점),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함(49.6점)으로 나타남(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 MZ세대 사회복지사는 “나는 요즘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3.9점으로 나타남
-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7.1점, “나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9.6점으로 나타남

〈그림 17〉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인식



미래는 사회복지 급여의 잔여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 간, 지역 간 격차 등 “격차 해소 또는 균형발전”은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목할 만한 미래 변화는 사회복지급여의 잔여적 성격이 강화될 것

- ▶ 정년퇴직 연령의 상승은 노인연령 상향, 고용형태 다변화 등 여러 가지 파생적 이슈가 발생하게 됨
 - 고용 형태의 다변화는 임금 소득과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위축하게 되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되는 소득보장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 정년퇴직 연령의 상승은 소득보장제도와 노인복지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현재도 돌봄노동자 중심으로 정년의 연장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고령노동자의 근무환경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
 - 또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 등이 예상 되는 반면 사회복지의 급여의 잔여적 성격이 강화될 것
 - MZ세대 사회복지사들 역시 ‘기본소득’, ‘사회수당’ 등 보편화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

지역 간 격차는 사회복지와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 될 것

- ▶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은 공통적으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격차 확대로 이어져 빈곤 및 격차의 축소 등이 복지정책에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 일부 지자체의 통폐합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지역 간 경제력, 인구규모 등에서 격차가 심화 될 것이며 “지역 간 격차”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임
 -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인구의 소멸 등은 사회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임
 -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농촌 및 도서 지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또는 서비스 제공방식, 확장 전략 등이 지자체 중심으로 개별화, 세분화된 접근으로 나타날 것
 - 가령 수도권 지역에서는 IT기술을 이용한 사각지대 발굴 이슈,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에 연관된 이슈 등이 반영되어 지역복지의 전달체계가 구성될 필요성이 있음

정신건강, 기후변화와
오염에 따른 질병,
팬데믹 등으로 위기
대응력 강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
구조 개선, 보건복지의
예방적·관리적 개입을
강조하게 될 것

사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중독 등의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정신건강 분야 서비스 확충 및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등 새로운 사회위험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개발하고, 현 정신건강 분야 내 사회복지사 등의 역할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
- ▶ 정신건강 외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도 정신건강에 관련 분야의 연계와 전문가(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의 인력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는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MZ세대 사회복지사 역시 연령이 아닌 디지털 기술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세계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복지 영역에 디지털 기술이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것
 - 이는 여전히 사회복지의 가치는 휴먼서비스 중심으로 형성되어 발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복지급여 관리, 복지 관련 데이터 처리 능력의 향상 등 부분에서는 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미래 역량의 변화를 시사⁷⁾

기후변화, 오염 등 환경 영역의 미래변화는 사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 환경영역에서 미래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환경오염, 팬데믹 발생 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예측은 질병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 의료 자원과 전달체계, 공공부문의 보건 의료 체제 위기 대응력 강화, 복지와 보건 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대비함이 필요
 - 특히 최근의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위기대응과 보건·복지 간 연계성 강화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달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 팬데믹 등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오염,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 등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현 의료체제로 대응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비와 확대,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되 지역복지와 연계된 접근이 필요

7) 정홍원 외(2021).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예측 연구-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